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현황과 과제

Family Relations in Later Life

: A Review and Prospect of Research During the Past 15 Years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 수 조 병 은*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n National Univ. of Education

Professor : Cho, Byung-Eun

<Abstract>

This review synthesizes research during the past 15 years on the family relations of older persons. After discussing two background issues - sociodemographic changes of later life families and the status of the elderly - the following topics are addressed; relationships between aged parents and adult children, couple relationships, grandparents' relationship with their grandchildren and sibling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hips are vital support systems providing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in the lives of older persons. Mutual assistance and affection among family members were found to be common characteristics. Although research on family gerontology has increased in quantity, there are greater needs to develop qualitative, longitudinal and theory grounded studies to capture the rich complexity of family life. Other challenge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on older persons' family relationship are presented.

▲주요어(Key Words) : 문헌고찰(literature review), 노년기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노부모-자녀관계(the relationships between aged parents and adult children), 부부관계(couple relationships), 형제관계(sibling relationships)

I. 서 론

노화경험은 그 사회의 경제적·사회적·가족적 체제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가족생활은 농경사회라는 경제적 구조, 효의식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직계 가족구조, 가부장제도, 혈연주의 원리에 근거한 가족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농경사회는 전원적, 마을공동체중심, 그리고 경제적 빈곤이라는 특징이 있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

문에 지역사회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구성원간의 결속력이나 협동은 필연적이었다. 부계혈연중심의 친족관계가 강화되고 부부관계보다 수직적 부자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가족구성원의 연령, 출생순위, 그리고 성별에 의해서 지위, 역할, 권리, 그리고 의무감이 주어지는 규범적, 의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광규, 1989; 한남제, 1997). 따라서 형제관계가 자매관계보다 중요했으며 외가보다 친가 중심이었고 며느리는 노부모를 공경하며 자손을 많이 낳음으로써 성취적 지위를 얻었고 장남우대불균등 상속제도로 노부모 부양과 책임이 장남에

* 주 저 자 : 조병은 (E-mail : euncho@knue.ac.kr)

게 부여되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연장자나 부모라는 높은 지위를 누렸고 장남가족과 같이 살며 경제적·정서적·도구적 부양을 받고 손자녀와 같이 지냈으며 다른 아들과 친족들의 의례적·정서적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장남에게 모든 재산권을 주고 사후에 장남으로부터 제사를 받는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현세대 노년기의 가족생활은 1970년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 기술혁신 그리고 풍요로운 경제로 특징지어지는 후기산업사회로 어느 사회보다도 빠르게 진입하고 압축된 변화를 겪으면서 인구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서선희, 1999). 이러한 변화는 노년기의 가족관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준다. 노년기가 유례없이 길어져 노부모 자녀, 부부, 형제자매, 그리고 조부모, 손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회는 많아졌으나 가족관계를 변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인생주기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행동규범의 변화를 요구하고 또한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은 과거의 가족관계에 대한 특성, 권력, 의무관계 및 책임들의 새로운 정의와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199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노년기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법적 요인을 파악하고 1994년 이래 진행된 노인관련정책을 주관하는 연구기관의 전국적 규모의 노인의 생활실태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부모-성인자녀, 부부, 조부모-손자녀, 그리고 형제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노년기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유지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노년기의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고찰은 신화용(1996)의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있었으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고찰은 노년기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법적 변화가 있고 노년기의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10여 년간에 수행된 노년기의 가족관계를 주로 다루는 가정학회지, 가정관리학회지, 가족과 문화, 가족관계학회지, 그리고 노년학회지 총 5학회지의 113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학위논문 그리고 저서 등은 제외되었으며 이 점은 본 논문의 제한점임을 밝힌다. 노년기의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의 경향과 결과를 근거로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성격과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노년기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법적·가족적 변화

급속한 후기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에서 노년기 가족관계와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학적 변화이다. 21C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있으며 고령사회(aged society)를 향해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에 달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게 되었고 인구의 고령화는 저출산율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1.6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1.08명)을 감안할 때 다른 선진국보다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통계청, 2005). 노인 인구비의 증가와 함께 평균수명이 늘어나 1990년에는 여자 66.7세, 남자 59.8세였으나, 2005년에는 여자 80세, 남자 74세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노후준비와 적응을 요구한다. 부양자녀 혼자 부양하기에는 어려움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늘어나는 노년인구에 대한 대비를 요구한다.

둘째, 여성의 취업률 증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7.2%에서 2000년에 51.8%로 50%를 넘은 뒤 2004년에는 53.9%로 선진국의 평균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나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05). 전통적으로 노인세대의 부양자 역할과 친족유지 역할을 했던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비취업 여성들은 자아성장을 위한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므로 여성의 노인 돌봄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핵가구의 증가이다(통계청, 2005). 혈연관계에 가치를 두는 가족구조에서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는 핵가족으로 변화함에 따라 친족집단의 영향력과 의무관계가 약화되었다. 노인이 독립 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의 부양이 우선시되고 장남의 동거 부양에서 자녀들과 분거부양으로 변화하고 외조부모의 역할이나 손·자녀와의 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형제관계보다 자매관계가 강해질 수 있다.

넷째, 상속법의 변화와 호주제도의 폐지이다. 현행 상속법은 1991년 이래 장자우대상속에서 딸, 아들을 구분하지

않은 균분상속제로 바뀌었다. 기여분 제도는 있으나 노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을 주지는 않아 부양자녀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보상이 없으므로 장남에 의한 상속권과 제사의무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도부터 시행될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보장토록 하는 민법도 상속제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 실시될 호주제도의 폐지로 장남이 집안을 대표하고 의무적으로 승계하는 권리가 없어져서 가부장적, 직계가족의 특성이 약화되어 장남 중심의 부양규범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이다. 비록 우리나라는 다른 서구사회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으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2000년에 시작된 기초 생활 보장비, 그리고 2008년에 시행될 노인개호보험 등의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여태까지의 가족이 부양했던 노인보호기능이 국가,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의 복지기관이 담당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복지영역의 확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녀에 의한 노후의 기본생존이나 의료비 부담이 약화되었고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심리적, 도구적, 정보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가치관의 변화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세대별, 성별, 연령별, 상하관계를 중요시하던 가족윤리보다 개인의 독립과 성취 그리고 평등한 관계를 강조한다. 부모나 연장자의 권위나 가치관을 존중하거나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근거한 독립을 추구하고 노인들도 자녀나 젊은 세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신체적·경제적·심리적 독립을 추구한다.

일곱째, 노년기 가족의 특징이다. 노년기의 가족주기는 다른 가족주기와 달리 다세대로 형성되어 있고 역사가 길며 역할상실의 변화가 많다. 노년기 가족은 3세대나 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1세대인 증조부모와 4세대인 증손자만이 부모나 자녀역할만을 하고 2세대, 3세대는 부모·자녀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역할, 직업역할, 부모역할, 자녀역할의 역할과다와 역할 변화가 많을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가족은 신체적, 심리적, 직업적 변화가 많고 은퇴, 질병, 배우자의 죽음 등과 같은 역할 상실의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부모, 자녀 세계의 역할 변화는 자신의 역할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로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이러한 역할 변화는 가족관계의 역사가 길고 다세대인 노년기 가족의 특성 때문에 부부,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 관계에 긍정적·부정적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가족적 변화는 노년기의 가족관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며 과거의 혈연관계에 대한 의무관계 및 책임들이 새롭게 정의되고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III. 노인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앞에서 제시한 인구사회적 변화는 현대대의 노인의 실태조사에서 비교적 잘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1994년 이래 보건사회연구원과 여성개발원에서 전국적 규모의 노인생활의 실태를 조사하여 노인과 가족관련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노인의 전반적인 상황은 통계청의 '2002년 가족·복지·노동부분 사회 통계'와 보건사회연구원(1994, 1998, 2004)과 여성개발원(2005)의 전국적 규모의 노인관련 실태조사를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청(2002)의 3만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노인 대부분(77.2%)은 "자녀집이나 양로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녀와는 같이 살고 싶지 않으나 대부분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여 독립가구를 유지하면서 애정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계책임에 대해서는 가족책임과 가족, 정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인이 있는 9,308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2004)의 가구형태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독신가구는 1994년의 16.2%에서 2004년에는 24.6%로 늘어났고, 노인부부가구는 1994년 22.8%에서 2004년에 26.6%로 늘어났으나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1994년 55.9%에서 2004년 43.5%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또한 노후에 건강이 악화될 경우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비율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25.8%,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로 혼자 살겠다는 노인이 많다.

자녀 및 친인척과 접촉정도는 노인의 77.3%가 적어도 월1회 이상 별거자녀와 접촉을 하고 있으며, 80%는 주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은 별거 손·자녀 46.8%이며 형제자매 22.2%, 친척 19.8%이다.

노인의 절대다수인 88.5%가 자녀들에게 대접받기위해 재산소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68.9%,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64.1%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가 27.8%, 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 12.5%, 공적연금 13.9%, 경로연금 12.8%로 나타났고, 월평균 용돈은 13만 3천원이다. 노인의 취업률은 30.8%가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주로 농·어·축산업이고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다. 취업하는 이유는 70%가 돈이 필요해서이고 노후생

활을 준비했다고 답한 노인은 28.3%로 낮았다. 이상적인 노후생활비 마련은 1994년에 비해 국가가 책임이라는 의식은 20.5%에서 2004년에는 40.9%로 증가하였으나 가족 및 자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은 1994년 26.2%에서 2004년 18.7%로 줄어들어 노후생활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컴퓨터 인터넷 이용인구는 5.4%이며 25.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였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인지율은 84%로 높으나 이용률은 15%로 낮았다.

2005년 여성개발원의 성인 2,925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족실태 조사'에 의하면 노인 돌봄 비용에 대해 노인을 모시는 가족이 부담(44.6%)이고 노인 스스로 부담(13.7%), 모든 형제자매가 부담하는 경우는 4.3%에 불과하였다. 노인 부양의식이 달라져서 능력 있는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고 장남 20%정도, 26%정도는 부모 스스로가 살아야한다고 답하였다. 노인부부의 여가 활동은 TV시청이고 노인의 가족여가 활동 참여빈도는 매우 낮아 가족과 여가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노인부양 지원 정책 서비스에 대해 '의료비용 지원', '전문 치료 요양 병원' 등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어 비용 등 현금지원이 가장 선호되었고, 사회적 서비스인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제도와 같은 가족생활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은 매우 낮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욕구는 가장 많은 것이 '가족건강 및 웰빙 정도'이며 다음이 '노후 준비 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이다.

IV. 선행연구고찰

우리나라의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는 노인

사회적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노후부양을 자녀에게 주로 의존하므로 성인자녀-부모관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다. 핵가족화로 부부관계가 중요해지면서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가 2000년 이후로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이 조부모-손자녀 관계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연구가 가장 적게 진행되었다(<표 1>).

1. 성인자녀·노부모 관계

시기적으로 길어진 부모자녀관계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부양문제로 인해 노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는 노년기의 가족관계 중 주된 초점이 되어왔다(신화용, 1996).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부양행동, 부양부담이 부모나 자녀의 심리적 적응이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보았고, 고부관계의 갈등과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1) 부양의식과 동거에 관한 연구

부양의식에 대한 연구는 자녀세대의 부양의식의 약화를 보고하고 부양의식은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서 아들이 딸보다 특히 장남의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김태현, 1994; 이가옥 등 1994).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주로 노부모와 같이 살면서 머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부모는 여러 가지 욕구를 동거자녀로부터 충족하며 자녀의 부양동기는 의무적인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옥경희, 1996; 윤가현, 1998; 조병은·신화용, 1999).

자녀와의 동거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아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가옥 등, 1994; 김태현 등, 1998)가 있는 반면 동거유무가 노

<표 1> 연도별, 관계별 노년기 가족관계 연구 경향

관계별	연도별	1990~1995	1996~2000	2001~2005	합 계
성인자녀·노부모관계	부양의식·동거	3	6	3	12
	부모부양	8	13	11	32
	고부관계	2	3	4	9
	상속	1	3	4	8
	기타	5	4	1	10
부부관계		1	6	11	18
조부모-손자녀관계		4	7	6	17
형제자매관계		3	2	2	7
합 계		27	44	42	113

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다(원영희, 1995; 유성호, 1996). 또한 노인의 행복감은 자녀와의 동·별거 여부보다는 노인의 상황적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정·최혜경, 2001; 한경혜·윤순덕, 2001). 박현정과 최혜경(2001)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보건사회연구원, 1998)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신체적, 자립능력 및 노후부양가치관에 따라 동거여부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립적 수입원이 있는 노인이 수입원이 없는 노인에게 비해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더 높고 노후에 노부부끼리 살겠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아들, 자녀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들보다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경제적, 신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자녀와 분가하여 살기를 원하나 자녀와는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였다(김태현, 1994; 원영희, 1995; 유성호, 1996; 한경혜·윤순덕, 2001).

2) 부모부양에 관한 연구

부모부양이 부모·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1) 부모부양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2) 부모부양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3) 부양자녀와 형제자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으로 나누어 보았다.

(1) 부모부양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초기 연구들은 세대 간 지원을 상호적 관점에서 보기 보다는 노부모를 부양의 일방적 수혜자로 파악하여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김효정·김명자, 1995; 성미애, 1991; 신효식·서병숙, 1992; 최정아·서병숙, 1992). 그러나 노부모세대가 과거에 비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독립적으로 됨에 따라 노부모세대는 더 이상 일방적인 도움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관점 하에 세대 간 지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노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와의 지원교환이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나 생활만족도 등의 개인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 노부모들의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의 지원교환이 자녀보다는 노부모의 복지감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노부모와 자녀의 지원교환이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는 김정석과 김익기(2000), 한경혜와 홍진국(2000), 이형실(2003), 윤현숙(2003)

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부모가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기만 하던 입장에서 자녀와 지원을 주고받는 입장으로 세대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노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에 대한 지원 제공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석과 김익기(2000)는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기만 하는 노부모들에 비해 자녀와 지원을 주고받는 노부모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자녀에게 지원을 주기만 하거나 자녀와의 지원교환이 없는 노부모들의 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경혜와 홍진국(2000)은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와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녀로부터 수혜를 많이 받을수록, 또한 자녀에게 지원을 많이 할수록 노인의 행복감이 높으며 특히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교환이 부족한 노모는 자녀와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노모에 비해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실(2003)은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지원교환과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보았는데 남성노인의 경우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구적 지원 제공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성노인의 경우 지원의 제공이나 수혜 모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윤현숙(2003)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부모와 자녀가 주고받는 도구적, 경제적, 정서적, 상담지원 등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부모부양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노부모부양이 부양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들은 주로 며느리를 대상으로 연구되었고 부양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성인자녀의 부양부담, 부양 스트레스 등을 본 연구가 가장 많으나 부양의 긍정적 측면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김명자·안선영, 1996; 김명자·이윤정, 1995; 김순기·유영주, 1994; 서소영·김명자, 1998; 성미애, 1991; 윤성은·한경혜, 2002; 윤순덕·한경혜, 1994; 윤현숙·차홍봉·조양순, 2000; 이가옥·이미진, 2000; 이숙현·손승영, 1992; 이신숙·서병숙, 1994; 정혜정·서병숙, 1998). 이러한 연구들은 부양자녀의 가족지원, 부양기간,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노부모의 건강수준, 일상생활능력, 노부모의 경제상태 등이 자녀가 느끼는 부양부담이나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노부모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양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친정모 보다는 시모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며(김순기·유영주, 1994; 이숙현·손승영, 1992; 정혜정·서병숙, 1998) 노부모와의 동거기간은 자녀가 지각한 보상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윤순덕·한경혜, 1994). 노부모의 일상생활능력이 낮아 의존적일 때, 주부양 자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동거자녀에게 부담을 준다고 한다(성미애, 1991; 윤순덕·한경혜, 1994).

한민아와 한경혜(2004)는 성인자녀가 지각한 지원교환 유형에 따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차이가 있으며 노부모와 지원을 주고받는 쌍방 형에 속한 자녀들의 심리적 복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노모를 부양하는 주부양자녀의 노모와의 관계의 질은 부양상황 보다는 자녀가 부양에 따라 경험하는 대가는 적을수록, 보상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신화용·조병은, 2004). 조병은과 신화용(2004)은 노모와 자녀의 지원교환 유형이 노모수혜형일 경우 부양자녀의 노모와의 관계의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부양자녀와 형제자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양자녀가 아닌 형제자매들의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유진과 한경혜(1997)는 노부모와 분거하는 며느리를 대상으로 이들이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조사하였다. 비동거 며느리들은 노부모와 빈번한 접촉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나 도구적 지원의 제공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와의 접촉빈도와 도구적 지원은 노부모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경제적 지원은 노부모의 경제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부모의 거주상황(노인단독 가구 vs 확대가족)에 따라 비동거 며느리들의 노부모에 대한 지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화와 한경혜(1999)는 시부모와 동거하는 농촌며느리를 대상으로, 시가 형제자매의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 상황과 이러한 지원이 동거며느리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동거며느리가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부양부담이 감소하며 이러한 영향력은 지차며느리보다는 만며느리나 외며느리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남부양 규범으로 인해 지차며느리가 큰며느리나 외며느리에 비해 형제자매의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동거며느리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에 자녀와의 지원교환이 중요하며 자녀와의 지원교환의 부재나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노인과 자녀의 생활만족도나 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대부

부의 연구는 주부양자녀와 피부양부모 2인(二人)체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자녀체제 모두를 본 연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3)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

고부관계를 본 연구는 핵가족화 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독립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의 고부관계에 대한 문헌고찰을 한 김필양(2004)은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이전에 많이 이루어지고 2000년대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1990년 이전의 고부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며느리나 시어머니만을 대상으로 고부갈등의 실태와 발생원인 그리고 대처방안과 갈등표출행동, 부양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었다고 하였다.

1990년 이후의 연구를 보면 이영숙(1997)은 고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의 실태와 유형을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파악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배선희와 김순옥(2001)은 남성의 시각에서 고부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5명의 장남을 심층면접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남성들은 고부관계를 여자들 간의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갈등의 원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며느리가 겪는 불편함, 고부 상호간의 이해부족, 대화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갈등이 있을 때 참기 어렵다고 느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효과가 없어서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고부간의 관계향상과 갈등회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이정연 등 1996; 홍숙자 등, 1996; 이정연, 2003)들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며느리를 대상으로 고부간의 갈등에 대처하며, 고부관계 개선을 위한 고부갈등 해결방안을 습득하게 하거나 긍정적 사고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제 가정생활에서 건강한 고부관계를 이끌어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고부관계의 연구는 부정적 측면으로만 접근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간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고부관계의 요인과 특성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고부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4) 상속에 관한 연구

상속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1991년의 상속법 개정 이후 이루어졌으며 주로 상속의식이나 상속관행을 보았다. 상속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상속의식의 변화정도는 성별, 세대별 그리고 가족지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상속에 관한 연구는 상속태도에 관한 연구(문영소·김양희, 1997; 이정음·김명자, 2001)와 상속행동을 본 연구

(박명희·정주원, 2000; 배종렬, 1997) 그리고 노부모부양과 재산상속에 대한 태도를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및 자녀의 가족지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연구(신화용·조병은, 2002; 조병은, 2003)가 있다. 문영소·김양희(1999)는 자녀가 있는 40세 이상의 기혼 남녀 384명을 대상으로 상속의식을 연구한 결과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생전에 상속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다. 상속방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상속하며 자녀의 출생순위나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와의 유대감이 깊은 자녀에게 많이 주는 불균형 상속을 선호하였다.

50세 이상의 성인 남녀 304명을 대상으로 한 이정읍과 김명자(2001)의 연구는 자녀의 장래를 위해 상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들 위주 직계혈연 위주의 상속을 지지해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균분상속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세대간 재산상속에 경험한 소수의 60대 남자를 대상으로 박명희와 정주원(1999)은 피상속인의 상속 태도, 동기,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갈등 및 가족관계의 변화를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들은 장남에게 가장 중요한 형태의 상속을 하고, 더 많은 몫의 상속을 하였다. 배우자에게는 노후대책 마련과 고마움의 표시로 상속하나, 딸은 교육과 결혼자금 지원으로 대체되어 상속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불균등 상속은 가족간의 갈등을 야기해 가족관계가 악화되었으며 피상속인은 상속을 통해 권위유지 및 노후보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가족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노후에 대한 불안감, 무력감,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선화 등(1998)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제사제도가 차츰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김기영과 박혜인(2001)의 연구에서도 재산·제사상속에 대한 의식이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행동은 전통적인 경향을 보여 장남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사상속에서 특히 장남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타인에 대한 상속 의식이나 재산의 사회환원 의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명희·정주원, 2000; 배종렬, 1997; 배희선, 1998; 신화용·조병은, 2002).

부모부양과 상속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본 연구(신화용·조병은, 2002; 조병은, 2003)에 의하면 한국노모와 자녀들이 재미교포노모와 자녀들보다 상속의식이 전통적인 성향을 보인다.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한국자녀들이 재미교포자녀보다 높고 한국자녀들이 노모부양자녀나 장자우대 상속을 많이 지지하는 반면, 재미교포자녀들은 균분상속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가상적 부양상황에서도 재미교포자녀들은 자녀균분상속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자녀는 장남우대상속이나, 아들들의 우대상속을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상속의식이나 상속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장남위주의 상속의식과 상속행동이 많고 균분상속이나 유대감이 많은 자녀에게 주겠다고 하는 의견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부부관계

노년기의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이며 최우선의 부양자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중요시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신화용(1996)의 노년기 가족에 대한 고찰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6년동안 한편도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부부관계를 본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활발히 이루어졌다. 노년기 부부는 직업역할의 상실과 적극적인 부모역할의 감소로 인해 부인과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관계일 수 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상호의존, 애정 그리고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동반자적 특성이 있고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다(정현숙, 1995).

은퇴 후 남편의 직업역할상실은 부부역할에 대한 재협상과 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하며 상호지원이 많아지므로 정서적 지지, 가사노동, 그리고 의사결정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신화용과 조병은(1999)의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를 본 연구에 의하면, 부부 간에 상당한 정서적 지지가 있고, 가사노동은 여성의 역할로 인지되어 남편의 참여가 거의 없었으며, 경제적 문제는 남편이 결정하는 편이었다. 결혼만족도는 비교적 남편의 만족도가 부인에 비해 높다. 부인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령, 남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남편은 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김태현과 전길량(1997)의 연구에서도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지지, 자녀와의 접촉빈도, 그리고 사회활동에의 참여정도가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사역할 수행은 약 70%정도가 할머니에 의해 전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전길량, 1997). 부인은 가사노동을 남편과 분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나 실제적인 분담행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노동참여도는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화용·조병은, 1999).

노인의 권력유형과 우울과의 관계를 본 연구(김재엽 등, 1998)에 의하면 노년기의 경우도 남성우위형이 24%, 여성우위형이 14.5%, 권력분리형이 35.5%, 평등형이 29%로 나타나 노년기의 의사결정유형은 평등형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연구에서 청장년의 경우 남성우위형이 13.1%, 여성우위형이 6.4%, 권력분리형이 51.5%, 평등형이 29%로 나타났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노인세대보다 더 평등형을 이루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부부갈등을 다룬 연구에 의하면 노부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비교적 낮았고(전길양·임선영, 1998; 이선미, 2001), 성격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문제, 경제적 문제, 성문제로 인한 갈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선영관 김태현(2002)은 노년기 부부가 지각한 부부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대처행동, 결혼불안정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노년기 부부들이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결혼 생활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요인도 남녀간 차이가 보여 남편의 경우 배우자 지지가 없을 때 부인은 부부스트레스가 높을 때 결혼불안정성이 낮았다. 김경신과 이선미(2001)는 노부부갈등에 남편과 부인 모두 개인적 변인보다는 부부관계 변인에서 갈등이 높은 편이었고 가장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은 의사소통 효율성이라고 보고한다. 또한,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은 우울수준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 때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낮을수록 노인의 우울수준이 낮아지고(김태현 등, 1999) 부인의 경우 여가공유도가 낮을수록 남편의 경우 의사결정공유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이선미·김경신, 2002). 이선미(2005)는 노인부부의 외로움에 대해 남편과 부인의 외로움은 긍정적 관계가 높았고 남편과 부인 모두 내적 통제성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외로움이 높다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는 사회관계망 맥락에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자녀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더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영범과 박준식(2004)은 가족관계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가족관계망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되었고 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보이는 자녀중심형보다 배우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중심형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자녀, 배우자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무관계형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임주영과 전귀연(2004)은 노인의 부부관계, 성인자녀와의 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부부관계와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아존중감만이 영향을 미쳐 자녀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노인의 안녕감에 가장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혜자와 김윤정(2004)의 연구에서도 부부관계가 노년기

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부부간의 사랑과 성태도에 따라 분류한 유형 중 긍정적 개방형의 성생활만족감이 가장 높게 나와 부부관계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중노년기 부부간의 낭만적 관계를 본 김윤정과 서선영(2005)은 남편이 부인보다 동반자적 사랑과 성생활만족감이 높았고, 60대 이후 노인은 부부간 사랑과 성생활만족감이 높았으나 성생활부담감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년기의 부부는 집안일이나 의사결정을 공유하지는 않으나 정서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애정적, 동반자적 특성을 보인다. 또한 부부관계가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나 삶의 질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조부모 - 손자녀 관계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조모 - 손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과거 전통 사회의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조부모 세대가 손자녀의 양육, 훈육, 그리고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손자녀의 사회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문화 전승의 역할자로 자녀 세대와 손자녀 세대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이광규, 1989).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간의 분리는 조부모 - 손자녀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조부모역할에 대한 행동적 기대도 모호하다. 또한 조부모 - 손자녀 관계는 부모세대가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손자녀와 같이 동거하던가 접촉할 기회가 적어져서 대부분의 연구는 도시를 대상으로 손자녀에게 하는 조모의 역할, 조모와의 동거의식, 손자녀와의 접촉정도(서동인, 1996; 김은경 2003), 청소년과 대학생인 손자녀가 느끼는 조모와의 친밀도(박의순·조병은, 1992; 백문화·조병은, 1992) 조모와의 공유활동(이영숙·박경란, 2000), 조부모 변인과 노인에 대한 태도(김은경, 2003) 그리고 조모의 역할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미숙 등, 2004; 조병은 등, 2002)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조모의 역할수행은 훈계자의 역할, 손자녀 지지와 대리모의 역할, 가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역할로 나타났고 훈계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정도는 일년에 한두번 내지 서너번으로 명절 때 많이 만나고 청소년들인 손자녀 세대는 외조모와의 가장 친밀하게 느꼈고, 조부모와 만족한 관계를 갖고 있는 청소년은 노인에 대한 태도나 세대간의 갈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조부모의 건강과 연령이었다. 청

소년들의 조부모와의 활동은 일상적인 대화나 정서적인 배려와 관심 등으로 애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이영숙·박경란, 2000). 이러한 연구들은 손자녀의 연령이 다양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손자녀와 조부모 관계에 끼친 변인들은 손자녀의 나이, 성별, 조부모의 성별, 건강, 교육수준, 접촉빈도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역할이나 친밀도는 접촉이 많을수록, 조부모와 손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조부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조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 때 관계가 좋고 상호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손·자녀 관계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맞벌이 가족이나 이혼한 가족의 지원체제로서의 조부모 역할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사회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많은 취업 모 가족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확대가족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희 등, 1993; 여성개발원, 2005). 맞벌이 가정의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김양희 등, 1993)와 취업모 가정의 조모역할(이미숙 등, 2004)을 본 연구에 의하면 취업모의 대부분이 조모에게 의존하고 취업모 가족의 조모 역할은 손자녀 지지 및 대리모 역할을 비취업가족보다 더 많이 하였다. 취업모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없을 때, 손자녀와 접촉이 많을 때 대리모역할이 많았고, 비취업모가족의 경우 조모-모의 관계와 조모의 연령이 대리모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취업모 가정이나 동거가정의 경우 조모역할은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조병은 등, 2002).

성인자녀가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여성노인의 우울감을 본 최해경(2002)은 조모들의 우울정도가 매우 높았다고 보고한다. 양육을 맡게 된 것에 조모의 불만이 클수록, 건강상태가 나쁘고,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또한 옥경희(2005)도 부모 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동기, 양육부담 그리고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를 물어보았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주된 계기는 자녀의 이혼이었고 조부모들은 부모가 자녀를 기를 형편이 되지 못할 때 당연히 조부모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손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녀와 관계가 나빠졌으며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도 나빠졌고 손자녀가 예의바르고 좋은 친구를 갖게 지도하는 일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양육비 부담이 높거나 손자녀의 성적이 나빠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나쁠 때 조부모들의 양육부담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조모와 손자녀 관계는 따로 살고 있으나 애정적인 관계이고, 핵가족의 중요한 지원체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부모의 지원체제의 역할은 취업과 같이 부모가 있어서 대리모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조부모가 자원이 없고 전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할 경우 조부모 역할은 조부모에게 부담감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4. 형제자매관계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형제·자매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그에 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노년기 형제·자매 관계가 노인의 적응이나 지원체제로서 중요한 이유는 부모 자녀 관계보다 더 오래 지속된 관계이고, 동년배 집단이므로 같은 세대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의무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년기의 형제·자매는 노년기에 겪는 은퇴, 자녀출가, 배우자 사망과 같은 역할상실과 그에 따른 사회관계망 축소에 의한 상실감을 형제·자매가 지원체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의 형제·자매 관계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개의 범주로 연구되어졌다. 첫 번째 범주는 주로 형제·자매간의 친밀감과 접촉, 지원 교환의 차원으로 노년기의 역할 상실에 따른 사회적 지원망의 하나로서 형제·자매의 지원을 보았다. 두 번째 범주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부양자녀와 그의 형제·자매들의 부양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범주인 형제자매의 지원을 본 윤희와 한경혜(1994)는 조사 대상자의 노인 중 50%가 적어도 한 달에 1번 이상 형제·자매를 방문한다고 하였고, 전화 빈도는 일주일에 2~3번으로 전화 접촉이 활발하다고 하였다. 노년기 형제·자매들은 전반적으로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로 의례적 지원을 하고, 친구나 이웃은 사교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해정(1993)은 지리적 근접성, 교육수준,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 때 노년기 형제·자매간의 상호 원조 행동과 상호작용이 높아져 객관적 결속을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법적·재정적 지원의 물질적 도움보다는 심리적·정신적 도움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임선영과 김태현(1994)은 노년기 형제·자매의 방문빈도는 1달에 1번 이상이고, 통화 빈도는 일주일에 1번 이상으로 지리적으로 형제·자매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면적 접촉과 전화 빈도는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혼을 한 경우나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형제·자매와 지리적으로 가깝게 거주하고 있어서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고 하였다.

홀로된 노인 여성의 자매지원을 본 조황숙과 조병은(2002)에 의하면 자매간은 대면적 접촉보다는 통화 빈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주로 받았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사교적 지원과 서비스적 지원은 주고받은 도움의 양이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홀로된 노인 여성과 자매간은 주고받은 도움의 양이 공평할수록 관계의 질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홀로된 노인 여성的高독감은 사회 활동 수준과 자매관계의 정서적 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생활만족도는 경제적 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미망인과 자매는 애정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두 번째 범주인 형제자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을 본 연구(강유진·한경혜, 1997; 이정화·한경혜, 1999)는 노부모와 동거하거나 주부양자인 며느리를 대상으로 형제·자매의 부양정도를 보았다. 형제·자매들은 따로 살지만 부모부양에 참여하고 부양자녀의 기대만큼은 부양하지 않았으며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한 부양자녀의 평가가 부양자의 부양부담이나 노부모와의 관계 질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지원이 없거나 분담이 되지 않을 때 부양자녀의 부담이 크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V.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적용

노년기 가족관계에 이론적 틀을 적용한 연구는 주로 부모·자녀 관계에 적용되었고 다른 가족관계에 대한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노인 부모-자녀간의 상호지원을 이해하는 이론적 접근으로 가족결속도, 사회 교환이론 그리고 애착이론이 적용되었다. 부부관계의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에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이 지지되었고 조부모역할과 심리적 적응에 상징적 상호론적 관점이 적용되었다.

먼저, 세대간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가족결속도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에 의하면 노부모의 자원이 많을 때, 즉 건강, 경제적 능력, 사회적 활동,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부모가 자녀와 자주 만나고 친밀감도 높았고, 서로 주고받은 도움의 양도 많았으며 자녀와의 갈등이나 심리적 손상감이 적고 인생만족도도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조병은, 1990; 신효식, 1996; 신효식·서병숙, 1992; 김은경, 2001; 원영희, 1995; 유성호, 1996).

노부모와 자녀의 접촉정도와 애정적인 결속도 즉, 자주 만나고 애정적일 때 노부모의 인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쳤다(원영희, 1995; 유성호, 1996). 또한, 기능적 결속도인 세대간의 상호지원이 많을수록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결속도 이론을 지지한다. 김정석과 김익기(2000), 한경혜와 홍진국(2002), 이형실(2003)은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지원교환이 노부모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애착모델을 적용한 성인 딸과 노모와의 관계를 본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와 높은 애착관계를 보이고 있다(유계숙, 1995). 또한 중년기 자녀와 노년기 부모의 애착 관계와 심리적 적응을 본 연구에 의하면(조병은 등, 1997), 자녀, 부모세대 모두 자율성과 애착이 높은 집단이 심리적 적응수준이 가장 높았고 애착과 자율성이 모두 낮은 집단은 심리적 적응수준이 가장 낮았다. 특히 노모의 심리적 적응에 노모의 딸에 대한 자율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년기 딸의 노모에 대한 애착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부모들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애착이 균형 있게 유지되기를 원했고,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인의 심리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노부모세대가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독립적으로 됨에 따라 노부모세대는 더 이상 일방적인 도움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관점 하에 세대 간 지원에 대해 사회교환이론이 적용되었다. 모선희(1991)는 노인의 근대성이 높을수록 즉 자원이 많을수록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환이론을 입증하였다. 노인의 자원 확보는 가족 내 의사 결정을 높일 수 있어 지위하락을 막을 수 있으나 노인의 가족 내 의사 결정권은 매우 적다고 보고한다. 조병은과 신화용(1992)과 신화용과 조병은(2004)은 성인자녀가 지각한 노모와의 관계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교환이론이 유용한 이론적 틀임을 지지하고 있다. 노모와 자녀가 상호 호혜적일 수 있는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경우 성인자녀가 지각한 성인자녀와 노모의 관계의 질은 자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노모를 부양하는 한국자녀와 재미교포자녀가 지각한 노모와의 관계의 질도 자녀가 부양에 따라 경험하는 대가와 보상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대가와 보상이 관계의 질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서소영과 김명자(1998)는 시어머니 부양에 따르는 보상과 부양의식이 부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는데 정서적 보상과 부양의식이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쳐 사회교환론적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민아와 한경혜(2004)는 성인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지원교환유형에 따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차이가 있으며 쌍방향에 속한 자녀들의 심리적 복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조병은과 신화용(2004)은 사회교환이론을 정교화한 공평이론을 적용한 결과 노모와 자녀의 지원교환유형이 공평형이나 자녀수혜형에 비해 노모수혜일 경우 부양자녀의 노모와의 관계의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공평이론이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노부모가 의존적이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이고 공동 이해를 추구할 때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교환이론의 타당성을 보여 주었다.

가족노인학에서 상징적 상호이론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개념, 명제, 가설을 입증한 연구는 별로 없다. 그러나 상징적 상호론적 개념인 정신요인들 즉, 인지도, 태도, 가치관, 역할평가, 상호지원에 대한 평가, 역할전환 등이 관계의 질이나 심리적 적응에 미친 영향을 본 연구는 매우 많다. 노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역할전환 즉, 조부모됨, 은퇴, 홀로됨, 시설에의 입주 같은 역할전환은 노인의 자아감이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고 또한 노인의 심리적 적응은 부모, 자녀, 형제, 손자녀와 같은 가족체제의 지원이나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상황평가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어 상호론적 견지에서 접근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조모, 손자녀관계가 조모, 손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조병은 등, 2002)는 일본사회보다 한국사회가 조모의 역할이 더 뚜렷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와 조모, 손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상징적 상호론적 견지에서의 역할이론을 적용하였다. 한국이 일본보다 조모역할수행과 역할만족도가 높았고 또한 조모역할수행과 역할만족도도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역할이론을 입증하였다.

노년기 삶에 대한 이해를 인생 전체로 확장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생애과정 관점도 적용되었다. 역사적, 사회적, 가족적 그리고 개인적 사건에 관점을 맞추는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 이론은 가족연구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고려할 점을 수용한다. 인간이 시간이 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개인의 인생전환점(Transitions)과 인생경로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인생패도와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한경혜(2004)는 7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노인들이 과거에 경험한 전환점적 사건과 그에 대한 해석이 현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생애사적 연구의 유용성을 제시 하였다. 생애 사건을 기술하는데 남성은 주로 직업경로 및 거시적 사건을 들었고, 여성은 가족사적 사건에 치중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최근에는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이 축소됨에 따라 어떤 관계망이 노후적응에 가장 중요한가를 보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Carstensen, 1992)이 가족관계망이나 사회관계망을 본 연구에 적용되었다. 사회관계망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본 연구들(김영범·박준식, 2004; 임주영·전귀연, 2004; 이해자·김윤정, 2004)에 의하면 자녀관계나 친구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사회 정서적 선택이론도 지지되어 사회관계망은 축소되지만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친밀하다고 생각되는 관계가 긴밀해지고, 선택적·애정적인 관계는 유지되어 노후적응에 도움이 된다.

뚜렷한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주로 한국과 재미교포를 본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사회보다 고령화 사회의 경험이 빠르고 사회부양제도가 발달한 사회적 맥락에서 노화과정과 가족관계의 보편성과 차이점을 보여줌으로써 제도적,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과 재미교포를 비교한 연구는 홍숙자(1992), 김태현(1999), 윤가현(1999)이 있으며 생활만족도, 가족결속력, 효의식, 우울감, 부양부담감을 비교하였다. 재미교포노인의 생활만족도가 한국노인에 비해 높고, 두 집단 모두 거주형태에 만족하고, 건강하게 느낄수록, 매일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김태현(1999)의 연구는 재미교포노인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한국노인의 경우 이용률이 낮다고 보고한다. 또한 노인이 지각한 가족결속도와 효의식은 양 집단 모두 높으며 두 집단 노인 모두에게 가족결속도와 효의식은 중요한 가치로 나타났다. 윤가현(1999)은 한국부양자가 재미교포 부양자에 비해 심리적 부담감과 부양의무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외에 한국인과 미국인을 비교한 연구로는 신화용 등(1997)과 이윤노(1999)가 있다. 신화용 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자녀 모두 부양의무감과 애정적 부양동기가 모두 높으나 한국자녀가 미국자녀에 비해 부양행동을 많이 하며 특히 경제적, 도구적, 오락적 지원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치매 증상을 갖고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한국과 미국의 성인 자녀를 비교한 연구(이윤노, 1997)는 한국자녀에 비해 미국자녀가 과거 노부모와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고한다. 또한 한국자녀가 미국자녀에 비해 책임감을 많이 느끼며, 확대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미국자녀는 사회적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며 부양에 따르는 기쁨이나 위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 론

지난 10여 년 간 노년기의 가족관계 분야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노인가족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연구기관의 정책입안자나 가족학자들은 후기산업사회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법적·인구학적 변화에 노년기의 가족구성원이 어떻게 적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연구하였다. 전국적 규모인 정부기관의 노인 실태조사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의 가족생활에 관한 연구는 노부모 자녀관계나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다른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어 역사가 길고 다세대인 노인가족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전통사회에서 있었던 노년기의 가족관계의 지속성과 변화의 양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나 지속성보다는 변화의 양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변화된 가족관계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혈연관계인 세대간의 의존보다 세대간의 독립을 추구하여 노부모, 자녀, 손자녀 관계가 보다 더 독립적이 되고 세대내의 관계인 부부관계가 중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핵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독립가구를 형성하고 노인세대는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자녀세대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자원은 노인의 인생만족도나 세대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대간의 관계보다는 부부관계가 노인의 적응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부모의 경제적 독립성과 그에 따른 자원확보가 노년기의 적응에 중요하고 노부모가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경제적 독립성과 자립성은 세대간의 부양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후기산업사회로의 변화를 먼저 경험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노인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노부모 성인자녀관계가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되었으며 보다 정서적, 애정적 관계로 변화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Brubaker, 1990; Mancini & Briesner, 1989).

둘째, 가족관계가 의무적인 관계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부양이나 지원이 아니라 부모들과 자주 접촉하고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애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호혜성의 원리는 조부모와 손자녀 세대관계, 형제자매관계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가족간의 상호지원은 경제적 자원의 부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

고 상호 호혜적 지원이 있을 때 노인의 심리적 적응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 호혜적인 도움이 노부모나 자녀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교환론적 이론으로 입증되었다. 비록 성인자녀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성인 자녀들의 능력은 한정된 경제적인 자원에 의해 어려움을 느끼며 자원이 부족할 때 노부모 부양은 자녀에게 부담이 되었다. 또한 도움을 받기만하고 주지 못하는 부모는 심리적 복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의 유대감은 의무적이고 경제적 의존에 근거하지 않고 상호부조, 애정감과 공동이해 관계에 기초하는 애정적 관계가 될 때 가족간의 결속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애정적인 부부관계, 자녀관계, 손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최근의 가족학이나 노인복지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추구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나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일치한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성공적 노화를 본 연구에 의하면 삶의 질이나 성공적인 노화 요인은 건강과 경제력,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강인, 2003; 권중돈·조주현, 2000; 김미혜 등, 2004; 김미혜·신경림, 2005; 김태현 등, 1999; 박정란·이영숙, 2002; 박은숙 등, 1998; 최혜경 등, 2005).

셋째, 노인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욕구가 자녀에 의해서만이 충족되지 않고 개인적·가족적·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노인은 경제적 독립과 노인핵가족을 이루면서 부부, 자녀, 형제·자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얻고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도구적, 정보적, 사교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비록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이용률과 가족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낮으나 복지시설의 이용은 개인과 가족이 해야하는 도구적, 사교적 지원을 보완할 수 있다.

한편, 지속적인 모습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가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나 노년의 경제적 준비 부족과 사회보장의 결여, 그리고 장남규범의식으로 대부분의 노인은 장남과 동거하면서 부양을 받고 있다. 장남부양규범 의식이 아직도 강하여 부모부양연구에서 장남 아닌 다른 형제·자매들의 지원이나 분담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의 태도나 관행에 관한 연구에서도 제사나 상속은 장남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둘째, 노인 핵가족이 늘어나고 부부관계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여 노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부부간의 역할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의해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고 중요한 의사결정사항도 남편주도형이 많아 부부간의 권력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의 노인은 과거 가부장제도 하의 부부관계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된 가족관계의 특성과 환경은 개인적, 가족적 그리고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준비나 대응책을 요구한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준비는 다음과 같다. 노후에 자녀들과 따로 독립가구를 형성하고 신체적, 경제적 자립을 원하므로 이에 대한 개인적 자원확보가 필요하다. 유례없이 길어진 노년기의 경제적, 신체적 자립을 위한 젊었을 때부터의 준비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개인연금, 공적연금, 자산소득 등의 재정확보가 중요하고 또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가족적 차원에서의 준비는 다음과 같다. 부모 자녀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부양자녀만의 과중한 부양책임은 부양자녀와 노부모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관계의 질이 나빠지고 부담감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장남으로서의 의무감만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발달과 세대간의 유대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녀세대 모두가 노부모 부양에 참여하고 부양을 분담함으로써 부양자녀를 돕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노부모부양은 주부양자녀와 노부모뿐 만 아니라 노부모의 자녀전체를 부양체제로 보아야하고 모든 자녀가 부양을 분담·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증가하고 지역사회의 서비스프로그램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역할이 성인자녀나 부부 또한 형제들이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이다. 사회적 서비스제도의 이용에 대한 정보를 가족원이 획득하여 어떤 종류의 혜택과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노부모가 지원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노인부부는 직업 역할과 부모역할이 없어지고 신체적 약화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다. 역할변화와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집안일을 공유하고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애정적 지원을 나누도록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서 재가복지서비스, 가정보건서비스, 가정봉사원, 가정간호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고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시설에 대한 개발이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 아직 미흡하고 선거족부양 후복지정책을 노인정책의 이데올로기로 적용하기 때문에 자녀세대들의 부양의무가 아직 강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인자녀의 과중한 부양책임은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관계의

질이 나빠지고 사회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자녀로서의 의무감만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부모 자녀관계의 발달과 세대간의 유대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인가족을 돕는 여러 가지 정책이 개발되어 가족과 국가가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가족을 보완하는 사회정책은 경제적이고 서비스적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책임을 손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부담감을 덜어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대감이 높고 애정적인 가족관계를 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인자녀에 의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되었고, 다른 관계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았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인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손자녀, 조부모관계,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3세대 가족, 4세대 가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증조부모-손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연구는 다세대로 이루어지고 긴 역사를 가진 노년기 가족의 특성과 세대간이나 세대내의 상호관계성을 보지 못하고 가족관계를 너무 단순한 접근으로 본 경향이 있다.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조부모-손자녀관계를 가족체계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주로 2인체제로 보았고 연구대상자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부모부양연구에서도 실질적인 부양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대상으로 시모와의 관계를 본 것이 많고 부부관계에서도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형제·자매관계에서도 자매관계를 다루었고, 조부모-손자녀 관계에서도 조모와의 관계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가족 내의 남성, 즉 부모자녀관계에서 아들과 아버지, 지차 아들, 사위가 연구되고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포함하고 형제관계에서 남자형제 그리고 손자녀관계의 조부, 증조부를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노년기의 가족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몇몇의 연구를 제외하고 이론적 근거 없이 기술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그리고 손자녀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이론의 발달은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넷째, 방법론적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대상자의 크기가 비교적 적고 편의 표집에 의거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전국 규모 또는 무작위추출에 의한 표본법이 사용되어야 하고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횡단적 연구만이 있고 종단적 연구나 단기종단적 연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가족생활의 지속성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관계 상호작용의 역동성과 세대간의 상호존성을 보고 3세대·4세대 가족을 추적하고, 은퇴과정, 부양과정, 홀로됨, 시설에의 입주 등의 과정을 종단적 연구를 함으로써 가족관계가 어떻게 유지하고 변화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탁노소, 복지회관, 양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회관, 노인회관, 노인정 등의 지역사회의 복지기관과 그에 따른 혜택은 공적지원체제로써 노인과 가족의 정보적,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켜 개인적 적응이나 가족의 돌봄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섯째,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장기보호노인, 요보호노인과 같은 노인인에 대한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노인부양연구는 비교적 젊고 건강한 노인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나 노인인의 증가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녀, 형제 지원체계가 어떠한 지원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많아짐에 따라 노년기 가족도 다양한 가족관계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가족, 단독가구, 부양자의 취업·비취업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자녀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3세대 가구,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가족, 4세대 가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집 수 일 : 2006년 09월 05일

□ 심 사 일 : 2006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2월 22일

【참 고 문 헌】

- 강유진·한경혜(1997). 비동거자녀의 노부모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1), 271-288.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경신·이선미(1998). 중년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관련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93-106.
- _____ (2001).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0(1), 31-54.
- 김기영·박혜인(2001). 도시가족의 재산·제사상속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69-281.
- 김명자·이윤정(1995). 성인자녀의 노부모부양 분담정도와 부양에 따르는 부담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25-137.
- 김미혜·강인(2002). 여성노인의 회상에 의한 한국근대사에서의 시부모부양 경험에 관한 연구-지시적 자서전적 방법-. *한국노년학*, 22(3), 1-19.
- 김병하·남철현(1999). 유배우자 노인의 우울정도와 관련요인 분석연구. *한국노년학*, 19(2), 173-192.
- 김선우·김태현(2003). 남녀노인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가정관리학회지*, 21(6), 141-155.
- 김순기·유영주(1994). 기혼여성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와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209-219.
- 김양희·박충선·서동인·신화용·조병은·최규련(1992). 학동기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3), 285-306.
- 김영범·박준식(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169-185.
- 김윤정·서선영(2005). 중·노년기 부부간 romantic relationship. *한국노년학*, 25(1), 87-102.
- 김윤정·최혜경(1993). 장애기관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63-83.
- 김은경(2002). 농촌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자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27-36.
- 김재엽·김동배·최선희(1998). 노인부부의 스트레스와 갈등, 우울증, 그리고 권력. *한국노년학* 18(3), 103-122.
- 김정석·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태현(1999). 노인의 가족결속도와 효의식 및 우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노인과 재미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19(2), 79-96.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김태현·전길양(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 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7(2), 167-182.
-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미국 이민 가족내의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간의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 65-79.
- 김효정·김명자(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36-46.
- 모선희(1991). 가족 내에서 노인의 의사결정. **한국노년학**, 11(1), 50-59.
- 민무숙(1995). 노모와 성인딸 / 며느리간의 상호원조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1), 74-90.
- 박경란(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부산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4(2), 74-89.
- 박경란·이영숙(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박의순·조병은(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연구. **가족학논집**.
- 박현정·최혜경(2001).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63-75.
- 백문화·조병은(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동거와 비동거 가족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6.
- 백주희(2005). 치매노인의 요양시설 입소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부양자 대 성인자녀 부양자. **한국노년학**, 25(2), 127-141.
- 백지은·최혜경(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5.
- 보건복지부(2005).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
- 서동인(1996). 10대자녀를 둔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 역할과 손자녀역할: 친조부모·외조부모에 따른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357-371.
- 서선희(1999). 1990대 이래의 한국가족의 변화와 앞으로의 변화방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47-163.
- 서소영·김명자(1998).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81-107.
- 신화용(1996). 1980년대 이후의 노년기 가족관계: 성과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35-49.
- _____ (2004). 노모를 부양하는 재미교포 자녀와 노모간의 상호지원교환, 자원교환에 대한 평가가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33-54.
- 신화용·조병은(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 혼만족도. **한국노년학**, 19(1), 31-44.
- _____ (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 _____ (2004).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본 노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가 지각한 보상, 대가 및 관계의 질: 한국과 재미교포자녀의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53-174.
- 신화용·조병은·Walker(1997).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본 노 부모부양과 재산상속의식: 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25-136.
- 신효식(1996). 노모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손상간의 인과모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35-45.
- 신효식·서병숙(1992).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이 노부모의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2(2), 99-108.
- 육경희(1996).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부양, 의무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65-276.
- _____ (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03-113.
- 육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1. **대한가정학회지**, 36(1), 157-182.
- 원영희(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유계숙(1995). 성인딸과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78-85.
- 유성호(1997). 자녀수와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결혼상태에 따른 분석. **한국노년학**, 17(2), 37-49.
- 윤가현(1998). 노인성 치매환자의 주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 및 부양의무감의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노년학**, 18(1), 75-90.
- 윤종희·이혜경(1997).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17(1), 289-304.
- 윤현숙·차홍봉·조양순(2000). 뇌졸중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2), 137-153.
- 윤희·한경혜(1994). 노년기 형제 지원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14(1), 117-139.
- 이가옥·이미진(2000).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정서적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2), 215-228.
- 이경숙·박경란(2000).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할

- 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6.
- 이광규(1989). **한국가족론**. 서울: 일지사.
- 이미숙 외 2명(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 수행: 취업모가족과 비취업모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2(4), 69-84.
- 이선미(2005). 노년기 부부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37-54.
- 이선미·김경심(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39-157.
- 이신숙(1997).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70-85.
- 이신숙·서병숙(1994). 기혼여성(며느리, 딸)의 노부모 부양 스트레스와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57-71.
- 이영숙·박경란(2000). 청소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6.
- 이윤노(1999). 치매노인 가족부양부담의 한·미 비교 연구: 문화적 요인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9(1), 45-60.
- 이정연(2002). 고부관계개선을 위한 긍정적사고 훈련프로그램의 적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117-136.
- 이정화·한경혜(1999). 형제자매의 지원이 시부모와 동거하는 며느리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9(3), 1-19.
- 이형실(1999). 농촌 부부가구 노인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109-120.
- _____ (2003). 농촌 노인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4), 57-69.
- 이혜자·김윤정(2004). 부부관계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24(4), 197-214.
- 이호선(2004). 유배우자 여성 노인 성 갈등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4), 69-86.
- 임선영·김태현(2002). 노년기 부부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 **한국노년학**, 21(3), 111-128.
- 임주영·전귀연(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71-87.
- 장혜경 외 7인(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개발원.
- 전귀연·임주영(2002). 노인의 애착 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3), 173-191.
- 정경희 외 5명(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 5명(20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혜정·서병숙(1997).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 및 세대간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49-163.
- 정혜정·서병숙(1998). 3세대 가족 내 성인자녀 부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70-193.
- 조병은 외 3명(1996). 3세대 모녀간의 애착·자율성 특성 발달특성과 심리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91-201.
- 조병은 외 4명(2002). 한국과 일본 취업모 가정의 조모 역할과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1(3), 213-229.
- 조병은 외 8명(1995). 3세대를 통해서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전 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1), 105-124.
- _____ (2003). 노모부양과 재산상속에 대한 한국인과 재미교포의 비교: 피부양모와 부양며느리/딸의 비교. **한국노년학**, 23(3), 161-176.
- _____ (2006). 주부양자녀와 형제자매의 지원이 노모와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재미교포자녀의 비교. **한국노년학**, 26(1), 161-178.
- 조병은·신화용(1992).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 _____ (2004). 노모부양에 대한 성인자녀의 공평성지각 및 이익에 따른 관계의 질: 공평성이론에서 본 한국과 재미교포사회의 비교. **한국노년학**, 24(3), 231-247.
- 조창숙·조병은(2002). 홀로된 여성 노인의 자매 관계 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0(2), 197-213.
- 최정아·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65-78.
- 최혜경(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최혜경·김윤정(1997). 한국치매노인 부양상황에서의 스트레스 과정. **한국노년학**, 17(1), 35-50.
-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0.
- 최혜경·홍현방(2003).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45-154.

- 한경혜(1996). 농촌 단독가구 노인의 자녀관계. *한국노년학*, 16(2), 21-38.
- 한경혜 · 윤성은(2002). 한국성인 남녀의 부양지원 제공실태와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 20(1), 65-73.
- 한경혜 · 윤순덕(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163-178.
- 한경혜 · 홍진국(2000). 세대 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회지*, 12(2), 55-80.
- 한남제(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 한민아 · 한경혜(2004). 세대 간 지원교환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 Brubaker. T. H.(1990). Families in later life: A burgeoning research are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59-981.
- Carstensen, L. L.(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 331-338.
- Cicirelli, V. G.(1994). Sibling relationship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7-20.
- Mancini, J. A. & R. Blieszner(1989).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research them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275-290.